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제3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로마서 12:1-2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34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51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의 삶 가운데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그 주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펜데믹을 통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뜻이 지금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여호수아 14:6-15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봉 헌(offering) 6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 offering) 502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성도 간의 기도와 교제(전화, 카톡)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이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우소식
 - 김희원권사님과 이춘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코로나 백신을 통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묵상〉 여호수아 14:6-12

6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 내 나이 사십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좃았으므로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좃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 오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날 내가 팔십 오세로되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찌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 갈렙이 사십 세 때에 어떤 일을 했으며, 그에게 모세가 맹세하며 약속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6-9절) 나에게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2.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10-12절)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온 흔적이 있습니까?
-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쇠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에는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며 그 믿음에 따른 소망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이 고백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4:16)”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는, 화려했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노년을 한숨과 회한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는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되는 시기가 바로 노년의 때입니다. 갈렙의 담대한 요구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오늘을 보내며 나이를 먹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